

## 大學에서의 써클活動

李 忠 元

(淸州敎大 學長)

## I. 序 論

전통적으로 大學의 機能을 학문을 창조하는 研究機能(research)과 학문을 전수하는 敎育機能(teaching), 그리고 학문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社會奉仕의 機能(service to community)으로 보아왔다. 대학의 本質인 이 세 가지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有機的으로 조화될 때 대학은 그 使命을 원만히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학은 文化를 창조·발전시키고 보전·전승시킬 뿐만 아니라 個人과 社會 그리고 나아가서는 國家와 人類社會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發展課業을 創造的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대학에서의 敎育活動은 크게 나누어 正規課程으로서 敎科中心의 學習活動(curricular activities)과 正規課程以外로 학생들 스스로 전개하는 학습활동, 즉 課外活動(extra-curricular activities)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兩者는 분리되거나 독립된 것이 아니고 相互補完的인 작용을 함으로써 대학 本來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課外活動은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敎科內容인 正規課程만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를 強制된 形式이나 制度 속에서 義

務的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選擇한 형식과 제도 속에서 自由스럽게 경험하도록 하는 任意的 敎育이라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간 入試 위주의 知識敎育 중심의 高等學校 敎育에서 폭 넓은 人間敎育이 소홀히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더우기 학생의 素質과 才能이 무시된 채 學力考查 檢수에 大學과 專攻學科를 맞추는 경향이 강해진 까닭에 대학의 正規課程에 못지 않게 課外活動으로서의 써클活動의 가치를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專門知識이었던 것이 이제는 보편화된 一般知識이 되고, 고등敎育이 大衆化됨에 따라 대학의 正課敎育만을 받은 이가 다양한 지식과 보다 높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產業社會의 엘리트로서 자처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현실임을 아무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폭 넓은 敎養人으로서의 資質과 人間關係를 대학의 正課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적으로 팽창한 대학 강의실에서는 검수 따기에 급급하여 同僚意識이나 連帶意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이러한 대학의 缺點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활발한 써클活動을 통한 課外學習이라고 할 수 있고, 과외학습으로서 써클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는 분명 大學教育의 중요한 位置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씨름活動의 機能과 史的 背景

### 1. 씨름活動의 機能

대학에 있어서의 씨름活動의 組織은 동일한 目的이나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 의하여 任意的이고도 自律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씨름활동의 조직이 임의적이고 자율적이라고 해도 대학 씨름활동이 大學教育의 일환인 이상 教育的 指導範圍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또한 대학 씨름활동과 과거에 있었던 대학 學生運動을 혼동하여 이 兩者를 동일한 概念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兩者는 學園이라는 活動의 場과 그 구성원이 학생이라는 점은 같을지 모르나 前者인 '씨름活動'이 갖는 의미는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課外學習活動'이고, 과거에 있었던 '學生運動'은 대학의 학습활동이 아니고 강한 政治的 意味를 내포하고 있거나, 高等教育을 받은 인구가 적어 社會가 학원보다 知的 水準이 높아 학원이 社會를 指導해 나가던 時代的 여건하에서나 改革의 一役을 맡았던 학생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學生運動'은 既成世代의 철학과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社會의 體制에 도전도 하였으며, 반면에 社會의 要請과 도움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씨름'은 순수한 大學教育의 일환으로서 대학의 教育指導내에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大命題이다. 간혹 과거의 대학의 '學生運動'과 오늘날의 '씨름活動'을 혼동하는 이유는 內的으로는 우리의 지난 歷史 속에서 발견되는 파란 많은 대학의 社會的 役割 때문이며, 外的으로는 1960년을 전후로 하여 일어났던 歐美를 비롯한 外國 대학에서의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의 물결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전자인 내적 이유는 植民地治下에서 民族獨立의 운상이 知識人의 집단인 대학일 수밖에 없었고 運動의 母體가 대학생이 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民族教育이 대학의 正課일 수 없었고, 植民政治의 追從者를 양성하기 위해 극도로 統制된 대학교육에서 취미와 教育內容의 선택이 불가능하였기에 부득이 씨름활동의 이름 아래 民族의 正史를 배워야 했으며, 多樣的 취미를 충족시켜야 했고, 폭 넓은 教養을 갖추어야 했다. 따라서 組織의 비밀과 目的의 포리와 指導의 거부가 正當視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이후 美蘇 兩大陣營의 사상적 대립과 정치적 분열은 우리의 대학사회까지도 敵對敵으로 양분시켜 思想的 씨름을 산출시켰으며, 정치적 혼란은 學園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政治씨름을 산출시켰으니, 이것은 우리가 志向하는 대학의 教育的 씨름이 아니라 政治와 思想의 團體이고 結社였으며, 순수한 의미의 교육적 씨름활동마저도 이들 政治家나 思想家의 계략과 목적에 이용당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따라서 筆者는 과거의 학생운동과 오늘의 학생씨름이 갖는 意味와 目的, 그리고 機能이 분명히 다르며, 현 시점에 있어서는 학생 씨름활동이 실제로 사회에 直接·間接으로 나쁜 政治的 影響을 끼치는 것이 아닌 社會發展을 위한 긍정적인 運動의 의미를 갖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의 教育的 指導 범위내에서만 存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학생 씨름활동을 과거의 '學生運動'이 아닌 대학교육의 課外活動으로서 생각하고 대학 학생과의 활동의 機能을 설명한 理論을 참고적으로 다음에 열거해 본다.

李榮德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1)</sup>

- ① 현존하는 社會·政治·經濟·文化·宗教의 각 생활영역에 대한 關心 확대
- ② 社會·경제·문화·종교 등 生活背景이 다른 사람들과의 協同의 생활 및 활동을 हे보 는 經驗의 기회
- ③ 專攻領域에 있어서 교실이나 실험실에서 학습하는 것과 관련된 知的 發達
- ④ 專門的인 形態의 활동을 통한 고도의 專門의 수준 및 理想의 양양
- ⑤ 公民的 資質의 受諾과 그것을 담당할 수 있

1) 李榮德, 「서울大學校 學生課外活動의 分析的 評價研究」,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3, pp. 13~29 참조.

는 능력 배양

- ⑥ 개인적으로 그리고 專門分野에 있어서의 동료들과의 友誼 및 紐帶 강화
- ⑦ 集團生活 및 활동에 있어서의 指導性 함양
- ⑧ 대학의 文化的 환경내에서 娛樂的·審美的 經驗의 체득
- ⑨ 개인 및 전문인으로서의 광범한 社會參與과 奉仕心의 양양

또한 멜튼(Melton A. W.)의 설명을 들어보면,<sup>2)</sup>

- ① 학생들에게 자기의 適性發見의 기회를 준다.
- ② 趣味의 향상을 도모한다.
- ③ 敎科成績 향상과 一般敎養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 ④ 他人과 원만한 人間關係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社會性을 기른다.
- ⑤ 새로운 技術과 能力을 단련하고 새로운 知識과 情報를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주장한 理論을 종합해 보면 대학의 學問研究를 보완·보충하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敎育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대학의 正課에서 배우기 어렵거나 배우지 못한 분야를 배울 기회를 갖게 된다.
- ② 敎育활동을 통하여 대학사회에 健全한 大學文化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 ③ 폭 넓은 敎養을 쌓으며, 많은 종류의 經驗者와 만남으로써 보다 올바른 社會性을 갖게 하여 民主的 共同生活을 위한 매도를 기른다.
- ④ 자신의 興味나 適性을 스스로 찾아 계발하며 大學集團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自我正體感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⑤ 대학생활 속에서 餘暇의 善用과 함께 內面的 慾求나 緊張을 올바르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精神的으로 安定을 기할 수 있다.

- ⑥ 敎育활동이 理論的으로 敎科를 통해 배운 바를 실제적으로 應用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회에 대한 자신의 使命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말한 모든 기능도 역시 大學敎育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敎育의 일환임이 명백하다.

## 2. 敎育活動의 史的 發展背景<sup>3)</sup>

대학 敎育의 健全한 發展方向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학의 敎育활동이 歷史的으로 발전해 온 배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現代式 高等敎育의 始發을 朝鮮末葉까지 소급할 수도 있으나 敎育의 活動樣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植民統治下의 대학 敎育활동부터 최근까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 1) 植民政治下의 大學 敎育活動

植民政治下의 대학 敎育활동은 선진 西歐思想의 계몽과 民族意識의 고취에 앞장선 巨族의 民族運動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활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社會改革의 선구적 운동이었으며 反日學生運動이었다. 이는 대학교육의 課外的 活動이 아니라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學生運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학생 敎育활동은 거의가 汎學生的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초의 학생단체는 徐載弼의 지도로 培材學堂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協成會’라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3·1運動 이전에 약 10여 개의 학생단체들이 결성되었다.<sup>4)</sup> 특히 3·1運動 이전에 결성되어 3·1運動의 힘을 儲蓄시켜 준 학생단체는 京城高普附設 敎員養成所의 朝鮮物產 獎勵契와 평양 崇實學校가 중심이 된 朝鮮物產 國民會運動을 들 수 있다.

2) 成龍龜, “大學生 敎育活動의 指導案,” 「學生指導研究」, 제12집, 公州師大 學生指導研究所, 1983, p.127에서 再引用.

3) 拙稿, “韓國 大學 敎育活動의 歷史的 變遷過程,” 「學生生活研究」, 제3집, 忠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78, pp.1~18을 要約한 것임.

4) 3·1運動 이전에 성립된 學生團體로서는 ① 西北學生親睦會(1906.4) ② 普成專門親睦會(1906.11) ③ 校友獎勵會(1908.1) ④ 橋南學生親睦會(1908.4) ⑤ 湖南學生親睦會(1908.7) ⑥ 湖西學生親睦會(1908.7) ⑦ 開城學生親睦會(1909.12) ⑧ 敎文義塾交友會(1910.3) ⑨ 中共基督教青年會學館의 學生青年會(1910.11) ⑩ 敎新學生青年會(1914.3) ⑪ 私立貞信女學校同窓會(1914.3) ⑫ 安岳學生親睦會(1916.5) 등이 있다.

한편 日本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제 1차 世界大戰의 종결과 함께 태동된 民族自治主義의 붐조 속에서 民族獨立을 위한 愛國運動을 전개 하였던 바, 1919년 東京市 朝鮮基督教 青年會館에 모여 朝鮮獨立國의 이름으로 獨立宣言書를 발표한 2·8學生獨立運動은 留學生學友會가 주축이 되었다.

1926년 6월 10일 隆熙皇帝의 國葬日에 시내 곳곳에서 학생들이 배라를 뿌리며 獨立萬歲를 외쳤던 사건도 그 해 4월 25일 발족한 '朝鮮學生科學研究會'가 주동이 되었다.

1906년 普專 法學科의 '訴訟演習會'나 '法律討論會' 등도 초기에는 비교적 순수한 학술적 대학 씨클이었으나 중국에는 反植民主義 運動體로 변했고, 또한 문맹퇴치나 생활개선 등 民衆敎化를 위한 각 학교의 啓蒙隊 활동도 일정한 명칭은 없었으나 역시 民族獨立運動의 일환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외에도 梨花의 '以文會', 'YWCA', '벚꽃회', 普專의 '草淸園', '三·一俱樂部', '運動部', '辯論部', 延專의 '雄辯研究俱樂部', '演劇俱樂部' 등 수많은 대학 씨클이 있었으나 결국은 같은 性質의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 解放 이후 自由黨政權下의 大學 씨클活動 光復의 기쁨과 함께 學園街는 또 다른 전통과 혼란에 빠져 들었다. 그것은 자급 學校가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었으나 政治的 혼란과 思想的 테러로 학원의 질서가 마비되었고 순수한 大學 씨클이 존립할 수 없었으니 일부 政治勢力의 學園利用과 左翼思想의 침투로 대학 씨클이 이들의 계획에 의해 本然의 目的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각종 학생 씨클을 규제하고 許可制를 하게 되었으나 역시 指導의 不充分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1948년 總選 후 官權이 개입하게 되었으니 初代 文教長官은 學徒護國團을 조직하여 학생 씨클을 학도호국단 휘하에 두고 강력한 指導體制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53년 學生自治機構로 개편한 뒤에는 비교적 활발한 학생 씨클활동이 전개된 듯하니 '모의 UN 총회' 활동, '國際問題研究' 단체, '音樂部', '美術部', '運動部',

'演劇部', '寫眞研究部', '山岳會' 등의 學術活動과 趣味活動은 팔복할 만한 것이었다. 또한 학생 씨클의 校外活動도 활발하여 방학을 이용한 農村啓蒙을 비롯하여 勤勞奉仕 등의 社會奉仕活動에 앞장섰다. 그러나 全大學이 反獨裁 투쟁에 참여한 4·19 직전에는 대학의 社會參與를 유도하였고, 일부 대학의 學生活動은 政治勢力化되어 본연의 대학 씨클활동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후퇴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 3) 4·19 이후의 大學 씨클活動

4·19 이후 대학 씨클활동은 獨裁政權을 타도시킨 母體로 부각되었으며 이 시기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自我成長의 몸부림을 친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방종 속에 일부 대학 씨클이 완전히 政治勢力化되고 학생활동의 선을 넘어 대학의 指導監督을 외면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指導의 責任을 다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渦中에서도 農村奉仕隊 등의 활동은 팔복할 만한 것이었으니 '4H 研究會', '農漁村問題研究會', '自進勤勞班' 등의 공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4) 5·16 이후의 大學 씨클活動

4·19 이후 혼란에 가깝던 學園의 無秩序는 5·16 이후 차츰 정상화되었고 대학 씨클의 새로운 活動方向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역력히 보였다.

정부의 大學人口 縮少政策으로 대학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각종 씨클이 일시적이나마 위축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전후한 高級人力의 수요로 大學人口가 다시 擴張되기 시작했고 겹쳐서 각종 대학 씨클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革命初期에는 이렇다 할 특기할 만한 학생 씨클활동은 없었으나 그런대로 명맥이 유지되었다. 새마을運動의 全盛期인 1970년대를 전후해서는 自發的으로 조직된 학생 씨클은 물론이고, 官의 支持·後援 및 援助 아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명목으로 일부 대학 씨클의 社會參與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政治的 硬直性和 長期執權試圖에 反旗를 든 학원가와 집권자간의 마찰은 또다시 대학 씨클활동을 위축시켰다. 즉 政策的 後

援을 받는 일부 씨클은 活動目的에 불구하고 御用으로 규탄하여 白眼視되었고, 반대로 일부 씨클은 反政府的 政治活動에 밀착되었다고 評定을 규제 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本意이든 아니든 씨클활동이 당국의 監督과 規制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 Ⅲ. 씨클活動의 現實의 問題點

그러면 씨클활동의 現況은 어떠한고 그 問題點은 무엇인가? 씨클활동의 現況과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 解決方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씨클활동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1. 씨클活動의 現況

第5共和國 초기는 政治·社會的 여건으로 인하여 學園이 극히 統制될 수밖에 없어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規制를 받았다. 그러나 政治의 安定과 더불어 學園이 自律化되자 대학가의 學生活動도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 活性化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대학 씨클활동은 둔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大學街의 自律化 자체가 學生活動을 둔화시켰다기보다는 자율화의 감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 學生들이 전체 학생의 씨클활동을 둔화시켰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자율화 속에서 대학 씨클활동은 表面上으로는 활발하였지만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난 각종 씨클은 哲學의 不在와 목적의 喪失로 과거의 혼란을 되풀이하게 하였다. 극히 일부 이기는 하지만 不透明한 目的을 가진 씨클이 浮上되고 대학교육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純粹性을 잃은 씨클이 胎動됨으로써 순수하고 선량한 씨클의 활동에 적지 않은 障礙要因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이들 일부의 씨클은 표면화된 組織目的과 실제 活動目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대학의 教育的 指導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으며, 正當한 방법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問題性이 露呈되고 있다. 더우기 대학 외의 政治勢力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일부 불순한 理念을 도입·확산하려는 勢力圈의 操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더욱 큰 걱정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건전한 씨클에 이러한 세력이 침투되고 表裏不同한 씨클이 조직됨으로 해서 선량한 학생들이 씨클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教授 자신도 이러한 세력이 자신의 指導下에 있는 씨클에 침투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指導教授 허락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은 大學 씨클활동을 위축시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씨클활동의 活性化를 위하여 다음 節에서 몇 가지의 指導方案을 제시하여 본다.

#### 2. 씨클活動의 活性化를 위한 몇 가지의 解決問題

1) 目的意識의 不分明에서 오는 문제점의 해소

대학 씨클활동의 目的에 대한 沒理解나 오해에서 오는 문제점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좀더 솔직히 말한다면 대학의 씨클활동이 올바른 方向으로 정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목적의 오해나 沒理解이다.

대학의 씨클은 靑少年期에 흔히 볼 수 있는 질풍노도와 같은 心理的 불평이나 불만을 폭발시키는 소위 慾求不滿의 解消處는 아니다. 분명히 大學教育의 일환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日政治下의 反日鬭爭의 학생 집단과 같은 것일 수도, 해방 이후 混亂期의 思想的 학생집단일 수도, 4·19 이후의 社會參與를 위한 學生政治集團일 수도 없다.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대학 씨클활동의 목적은 대학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正規敎科課程과 兩面을 이루는 필연적인 교육과정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을 인식시킬 때만이 대학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指導의 미흡에서 오는 문제점의 해결

학기초 學點등록시 대부분의 대학에서 씨클登錄 권유가 熱氣를 띠게 된다. 과거에는 1학년 학생이 入學하자마자 씨클 加入이 허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소위 씨클을 탐색한 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학기부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료 또는 선배로부터 그 情報를 입수하고 가입을 권유받는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학의 責任下에 指導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학 敍클活動 指導를 위한 指導教授時間을 配定하고 지도교수 시간을 正規의 教授責任時間化하는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敍클활동은 자유스러운 시간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監督이 아니라 敎育이다. 따라서 敍클에 가입을 원하는 학생은 學點登錄時 指導教授의 承認이 필요한 것과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統制나 規制가 아니라 敍클활동이 本然의 目的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有名無實한 敍클이 얼마나 많은가는 언급의 필요가 없는 실정이다. 더우기 새로 조직되는 敍클의 경우 指導教授를 정하지 않으면 敍클활동을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關心이 없거나 指導意思가 없는 교수가 形式的으로 학생들로부터의 愛원에 못 이겨 지도교수를 허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철저한 指導教授制만이 敍클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다.

### 3) 敍클長 資格의 問題性

대부분의 경우 指導教授도 추대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역시 敍클長도 학생들의 選學 또는 추대에 의하여 결정된다. 흔히 敍클활동에서 문제되는 것이 敍클長의 指導者的 資質이다. 올바른 指導者가 있는 경우는 그 활동이 활발하나 지도성이 빈약하다거나 특히 品性과 學業成績 등이 不良할 경우는 활동이 침체될 수 있다. 따라서 敍클長을 承認하는 경우 일정 水準 이상의 성적과 품행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敍클활동을 위한 補助의 問題性

敍클활동이 분명 大學敎育의 一環이라고 한다면 일정 범위내의 활동은 校費의 支援이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규모가 큰 대학에서는 다소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극히 少額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들 스스로 공동 分擔하거나 會費制로 운영되고 있다. 自治的인 運營인 까닭에 회비제 등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현재 學徒護國團 산하의 活動機構라고 한다면 운영비는 호국단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과거의 대학 敍클 중 일부가(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政治勢力이나 不純勢力 등의 후원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는 점이다.

### 5) 敍클활동을 위한 施設不足 해결

대학 敍클활동의 중심되는 場은 大學內이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大學外에서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활동의 센터는 대학이어야 하므로 대학내의 活動施設을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많은 敍클이 있는 경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가급적이면 敍클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6) 全無한 指導費支援의 해결

指導教授에게 전적인 責任을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도에 필요한 指導費를 일정한 限度에서 지급해야 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專攻學科別로 運營費(어떤 학교에서는 學科長 辦公費)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敍클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專攻學科別 운영비에 못지 않게 敍클指導費의 必要性이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